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지난 주에는 '2008년 좋은 습관 만들기' 첫 번째로 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현금으로 바꾸자는 것과 두 번째는 저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남은 돈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제안했다. 이번 주는 투자 방법에 있어 좋은 습관은 무엇이고,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직접투자 보단 간접투자는 돌려야

새해에는 좋은 투자습관 만드자

주식시장 외국인 매도

올해 들어 4조원 넘어

개인 투자자 2000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 수익률 투자는 과감히 펀드 전문가에게 믿고 맡겨야

올랐음에도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은 오히려 거꾸로 갔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개인이 개별적인 종목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의 경우 개인들은 시장이 1,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사실은 잊고, 2,0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로 내려온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단기적인 변동성만을 시장의 기회

또는 위기로 판단하다보니 오르는 주식이 팔고, 가격이 떨어지는 주식은 보유하는 투자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직접투자가 성공했을 경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지나친 자기 확신을 보이며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 비율을 높여 수익을 떨어뜨려 왔다. 투기적인 몇 종목을 '올인'하다 결국 원금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물론 우량주를 장기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 마감 전까지 컴퓨터 화면의 주식 차트에 눈을 떼지 못해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주식을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독자 분들이라면 올해는 과감히 직접 투자를 접고 펀드에 장기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당부드린다. "좋은 습관 만들기"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자"이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을 혹사하거나,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재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나의 신체적 건강이 담보되어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결국 어렵게 모은 자산도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만 '불량 식품 먹지 마라', '제발 공부 좀 해라'고 잔소리 할까 아니라 나부터 술, 담배를 줄이고, 운동하고,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떨까? 활력있는 모습은 또다른 나의 매력을 개발하고, 그러한 모습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될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올 들어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한 주식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일부터 11거래일째 이어지는 '팔자' 행진을 지속해 정규장에서 무려 7천395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16일까지 3조7천321억원을 순매도한 것에 더해 이날 순매도로 인해 들어 3주도 못된 기간에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는 4조4천716억원으로 4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16일에는 지난해 8월16일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많은 1조 172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 공세로 코스피주도 하락세를 면치 못해 지난해 12월28일 1,897.13으로 한 해를 마감했던 지수는 올 들어 1,700대 초반까지 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이날까지 개인과 개인은 각각 1조9천139억원과 1조1천459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맞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동부증권의 송경근 애널리스트는 "한 해에만 27조원을 순매도한 지난해에도 외국인이 하루 1조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쇼크가 있었던 8월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IMF "예상보다 심각"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 경고했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따른 모든 손실을 아직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현재 드러난 것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각종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내 은행들은 아직 자산을 실거래 가격으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같은 사태가 야기될 경우 통상적인 모델로 자산가치를 평가할 경우 잠재적 손실은 더욱 커지는 게 상례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합뉴스



신학기 가방 벌써 나왔네. 광주시신세계백화점은 14일부터 신학기 시작 전까지 '가방용품 특집전'을 열어 ছ라 아동 책가방(6만9천원), 중고등생 책가방(8만9천원) 등을 판매하고 있다. (광주시세계 제공)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인수까지...

대기업 맞서 치밀한 컨소시엄 구성 주효 박삼구 회장 재계 '미다스의 손' 재무상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의 인수합병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해 8월 대한통운이 떠안고 있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해 리비아 정부로부터 최후완공명서(FAC)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합병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자 국내 대기업들이 일제히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매각방식은 당초 유력시 됐던 '50%+1주'에 해당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보다 많은 75%의 유상증자를 택했다. 즉 대한통운을 인수하려는 기업은 기존 총 주식 1천600만주를 제외한 추가로 발행되는 신주 2천400만주를 인수해야만 새주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대한통운 주가를 10만원으로 분단면 액면가만 따져도 2조4천억원이 된다. 그 결과 금호아시아나 등 10개사가 인수의사를 밝히고 예비 실사작업에 들어갔으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높은 인수 예상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바람에 금호아시아나·한진·현대중공업·STX 등 4파전으로 압축됐다. 한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잇따라 대형 프로젝트를 파내면서 재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부상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2년간 대우건설 인수와 아시아나항공의 파리노선 취항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뤄내는데 이어 올초 인수합병시장의 최대어인 대한통운마저 넘어섰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대한통운을 인수함에 따라 항공·물류·육상 등을 모두 운영하는 명실공히 최고의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면서 "박 회장은 항상 임직원들에게 자제를 낮추고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좋은 기업으로 변해갈 것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주문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억 아파트, 5천만원이면 산다"

인수위 '지분형주택분양제' 도입 ... 수요자 부담 덜게

이르면 하반기 수도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우선 시행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국민주택 (전용 85㎡ 미만)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규분양하는 실수요자는 분양가의 절반만으로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리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란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집값 마련이 힘든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다. 인수위는 지분투자자가 임의로 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하고, 투자자는 최대 49%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였다. 다만 지분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보유한 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지분형 분양제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수도권 국민주택(전용면적 85㎡ 미만) 규모 이하 아파트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2분과 최재덕 위원은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실수요자는 최대 1억200만원, 투자자는 최대 9천8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특히 실거주자는 기금에서 5천만원 가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부담금은 최대 5천만원대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선·일반기계 올해도 실적 양호

산자부, 주력산업 전망 조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가운데 지난해 호조세를 보였던 조선과 일반기계, 디스플레이업종이 올해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구가하며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자원부는 17일 12개 주력업종의 업종별 생산자 단체를 통해 조사한 주력산업 2008년 전망자료를 통해 이들 업종을 올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산업으로 꼽았다.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조선업은 올해 13.6%의 생산증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15.2%)에 이어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고 수출은 지난해 270억 달러에서 올해 305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기계업종도 신용 성장국 대상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9% 성장한 데 이어 올해도 10.3% 성장하면서 생산액이 97조4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증권 관련 민원 급증
작년 26건 36% 증가**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2007년 대외민원관련 업무를 분석한 결과 증권사와 고객 간 분쟁조정 등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과당일임매매 등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건수는 2007년 총 26건으로 전년도의 19건에 비해 36% 증가했으며, 인터넷·전화 상담 등을 통한 일반민원 상담도 1천140건으로 전년 1천13건에 비해 늘었다. 또 현직 법률전문가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경우에도 2007년 중 총 116건을 처리해 전년도의 82건 대비 41%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한해 매출 1조6천억 ... 국내 최대 물류기업

대한통운은 어떤 회사

대한통운의 지난해 매출은 1조6천억원으로 국내 최대 물류기업이다. 1930년 '조선미곡창고회사'로 창립한 대한통운은 현재 국내에만 42개 지점 및 지사, 1만여명의 택배 취급점이 있으며 4천200여명의 직원과 국내외 1만6천500여대의 트럭과 중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인천 등 전국 22개 무역항에 항만 하역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부산지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2천억원에 달하는 등 1개 지사의 매출이 웬만한 물류기업과 맞먹는다. 대한통운은 포항종합제철소 건설물자 운송,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남도일보	대표 수행운전기사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1/19	062-670-1023
(유)하이센스여행사	상담 및 OP 업무 경력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062-350-6222
(유)한성MS	GS유통팀 여수공정/사무직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1	062-350-8860
(유)케이알정보통신	전산장비 AS 기술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21	062-223-5230
(유)HRN	SK텔레콤 서부지사 법안영업 지원팀 남직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22	062-529-2671
(유)스텔	KTF 서광주 멤버십콜라자 정규직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4	042-223-4900
(유)서준	정규직 공무 및 현장관리 신입/경력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2800~3000	01/25	011-614-0921
대양공조시스템(유)	중형생산지배배송 및 설치업무 남직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1/25	02-928-6257
주은종합물산(유)	경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1/25	062-603-1111
(유)포디자인	웹디자인 / 플래시 디자이너 (경력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1/26	062-350-3977
케이무역	종합건축자재 무역 및 도매 참고직 남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6	062-944-0030
영이ENG	금형 생산직 정규직 신입/경력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8	062-963-594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유)	2008년 신입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460-2705
유니	생산기사, 기술연구소 시험담당, 품질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1-362-0789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지난해 화재로 훼손된 지폐 10억

지난해 화재 등으로 불에 타 한국은행이 새 돈으로 바꿔준 금액이 전체 훼손지폐(소손권) 교환액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소손권 교환건수는 7천493건, 교환액은 10억4천9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8%, 15.5%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유별로는 화재 등 불에 의해 훼손이 5억500만원(48.2%)으로 가장 많았고 ▲습기 등에 의한 부패(3억7천200만원) ▲장판에 의한 눌림(8천100만원) ▲세탁으로 인한 탈색(2천900만원) ▲갈집 등에 의한 훼손(2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교환액이 전년보다 16.9% 늘어난 10억200만원으로 전체의 95.5%를 차지했고 5천원권과 1천원권은 각각 2천만원과 2천700만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